

동남권 2단계 광역선도산업 육성전략



동남권의 산업현황

동남권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제2의 광역경제권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제조업 측면에서는 수도권보다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제조업 종사자 수는 전국의 23.4%로 수도권 41.7%에 비해 매우 적지만, 생산액은 전국의 28.6%로 수도권 28.5%보다 더 많아 실질적인 국내최대의 산업집적지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동남권의 제조업 중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의 종사자수는 전국의 86.4%로 자동차, 조선관련 산업에 매우 높은 집중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C15)은 41.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은 56.3%로 경남-부산-울산지역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5% 내외로 열악한 수준이다. 생산액을 살펴보면,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89.4%,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은 56.3%,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은 40.8%로 동남권의 주요 산업적 특성이 수송기기 및 기계, 석유화학산업에 매우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규모별 분포를 보면, 300인 이상



하창현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책임연구원
habak@chol.com

▶ 제조업 분야별 종사자 현황



▶ 광역권별 2011년 수출현황

광역권/시도	수출액(백만\$)	비율(%)
전국	555,213,655	100.00
수도권	170,365,176	30.68
서울	56,002,512	10.09
인천	26,805,483	4.83
경기	87,557,181	15.77
충청권	76,245,605	13.73
대전	4,122,180	0.74
충북	12,169,671	2.19
충남	59,953,754	10.80
호남권	66,149,705	11.91
광주	13,339,695	2.40
전북	12,818,350	2.31
전남	39,991,660	7.20
대경권	58,500,563	10.54
대구	6,371,158	1.15
경북	52,129,405	9.39
동남권	181,848,946	32.75
부산	14,561,601	2.62
울산	101,480,083	18.28
경남	65,807,262	11.85
지역경제권	2,077,128	0.38
강원	1,977,393	0.36
제주	99,735	0.02
기타	26,532	0.00

대기업이 전국의 24.6%이고, 100인 이상 기업의 비율은 24.3%로 대체로 동남권의 제조업은 타 권역에 비해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이 많아 규모면에서 크다

▶ 동남권 광역선도산업의 비전과 목표



시할 수 있었으며, 권역내 시도간 협력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정책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었다.

선도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은 수송기기 및 기계, 화학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어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 동남권의 선도산업은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자동차, 조선, 항공 등의 산업을 선정하였고, 미래성장동력은 이러한 기반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으로의 다각화를 위해 도출하게 되었다.

산업별 주요 특성을 보면, 풍력부품과 원전설비는 미래 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의 기반산업인 기계부품과 연관되어 있고, 국내 최대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하고 있어 지역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화학융합소재산업은 석유화학산업을 고도화하고 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지능형 기계부품, 친환경 차량부품, 항공은 지역 특화의 대표 산업이며, 해양플랜트기자재와 그린선박기자재는 전국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이다.

동남권 선도산업 육성전략